

밭길 달는 곳마다 비색으로 반짝

부안청자박물관, 유천리 12호 고려청자가마터 발굴 성과전 개최

부안군은 오는 4월 30일~10월 27일까지 6개월간 부안청자박물관에서 부안 유천리 12호 고려청자가마터 발굴 성과전 기획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안마실축제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친 년 전통의 아름다운 부안고려청자를 소개하고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전시회를 마련하였다.

전북 부안군 유천리와 진서리는 고려청자의 메카로 밭길 달는 곳마다 비색으로 반짝이는 고려청자 파편이 무수히 존재하는 곳이다.

800년 전통의 부안 고려청자 가마터는 1963년 국가 사적 제69-70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으며, 약 2만평 면적에 13개 구역 총 77개소에 달한다. 이 중에서 보안면 유천리(柳川里) 12호 청자가마터 일대는 고려황실용 청자를 제작했던 특별한 곳으로,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과 종합적인 복원·정비를 위하여 2015~2018년까지 문

화재조사를 실시했다.

3차례에 걸친 정밀조사를 통해 청자를 구웠던 가마 1기, 고려시대 건물지 4동과 부속시설과 함께 고려청자와 기와, 고려 백자·흑유자·도기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청자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왕과 왕비를 상징하는 용과 봉황무늬가 장식된 매병·벽 장식판·향로·수반·차잔·대합 등으로 부안 유천리가 고려황실용의 그릇을 만들어 납품했던 당대 최고의 청자 생산지였음을 반증하는 자료이다.

이와 함께 세계 최초로 산화구리 안료로 선홍색을 표현한 동화(銅畵)청자, 은은한 미색 바탕에 봉황이나 모란·국화·구름 화 무늬를 섬세하게 흑상감한 백자 등은 부안만의 독특한 고려청자의 품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번엔 전시되는 200여점의 발굴청자와 함께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는 희귀유물 두

점은 기획전시의 백미로 꼽히는데, 한 점은 김대환님이 2011년에 부안청자박물관에 기증한 '청자양각 용무늬 비부'이다.

이 유물은 부안 유천리에서 제작된 것으로 용의 입을 통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진 비부와 연적을 겸용한 특별한 작품으로 가치가 매우 높다.

다른 한 점은 화조무늬를 투각으로 장식한 은관을 찻잔 외면 전체에 둘러싸인 '고려백자 은투각장식 햇무리굽 찻잔'으로 고려 초 백자의 전통이 부안 유천리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려시대 뛰어난 금속공예와 도자공예의 콜라보레이션을 볼 수 있는 진귀한 작품으로 주목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겨울에 움츠렸던 생명이 기지개를 펴고 소생하듯 천 년 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고려황실용의 최고급 부안청자가 날개를 펴고 비상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4월 29일 부안청자박물관에서 열리는 전시 개막행사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도과학교육원이 5월 26일까지 2019 특별기획 '자연관찰 드로잉'을 개최한다.

“계절별 자연관찰 통해 생태감수성 키워요”

전북도과학교육원, 내달 26일까지 특별기획 '자연관찰 드로잉' 개최

전북도과학교육원은 5월 26일까지 2019 특별기획 '자연관찰 드로잉'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자연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등롱, 소나무, 토끼풀, 뱀이 등 자연을 소재로 한 환경적 작가의 작품 120점을 계절별로 소개하며 학생과 도민들에게 자연관찰 경험과 생태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연관찰 드로잉 작품들은 일반 세밀화와 달리 현장에서 직접 펜과 수채화 물감으로 짧은 시간동안 그려내기 때문에 세밀한 관찰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과학의 기초인 관찰력을 통해 평범하고 흔한 식물이지만 흔하지 않은 이야기를 찾아내는 작가의 시선과 철학을 함

게 만날 수 있다.

전시회와 함께 실내 숲놀이, 학생 및 일반인 드로잉 작품 전시, 드로잉 작품 동영상, 숲과 관련된 독서코너 등이 상시 운영되며 주말에는 드로잉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자연관찰 드로잉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2회씩(14:00, 15:30) 50분간 진행된다.

사전접수는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순서순 접수하고,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온라인 신청자(매회 20명)에 한해 가능하다.

4월 27일 오후 2시에는 만화가이자 숲연구가인 작가의 철학을 들을 수 있는 '작가의 만남'도 마련된다. 초·중학생 및 성인(유치원생 관람 제한) 온라인 신청자 4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과학교육원(063-917-713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고창군 성내면 윤도장 전수교육관에서 '윤도, 우주를 보다' 프로그램이 11월까지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에 진행된다.

“전통 풍수나침반, 직접 제작 해보세요”

고창 윤도장 전수교육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330여년간 전통 풍수나침반의 명맥을 이어 내려온 고창 윤도를 직접 제작해 보는 기회가 마련돼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군 성내면 윤도장 전수교육관에서 '윤도, 우주를 보다' 프로그램이 11월까지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에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국내 유일 국가지정 무형문화

재 윤도장 김종대(보유자) 선생과 김희수 전수조교를 직접 만날 수 있으며 무료로 윤도 제작 시연과 체험을 할 수 있다.

윤도는 중심에 자침을 두고 24방위를 기본으로 여러 개의 동심원에 쓰여진 방위(方位)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구이며 패철(패鐵), 쇠, 나경(羅經), 지남반(指南盤), 지남철(指南鐵), 흔히 나침반으로 불리는 기구이다.

윤도는 음양(陰陽), 오행(五行), 팔괘(八卦), 십간(十干), 십이지(十二支) 및 24절후(節候)가 조화롭게 배치돼 있어 고대 동양인들이 우주의 순리와 법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김종대 선생은 고창군 성내면 산립리 낙산마을에 있는 윤도장 전수교육관에서 윤도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관련 문의는 윤도장 전수교육관(063-562-3167)으로 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바쁜 일상 속 잠깐의 휴식, 점심시간에 만나는 특별한 음악회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후 12시~1시 완주복합문화공간 누에서 런치콘서트

완주군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완주군은 봄기운이 완연한 4월을 맞아 내일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7, 8월 제외)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완주복합문화지구 '누에아트홀' 앞에서 직장인을 위한 '런치 콘서트'가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누에 런치 콘서트는 완주군청 직원들과 청년기움식당, 누에살롱 등 군청을 찾은 이들이 점심시간에 봄맞이 만발한 누에리온지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다.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완주군이 '문화복지'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업무 외 시간에 자기계발을 할 시간이

여유롭지 않은 직장인들을 위해 잠깐의 휴식 시간인 점심시간을 이용한 공연을 준비한 것.

첫날인 24일에는 '음악으로 이야기하고 악기로 말한다'라는 뜻을 가진 어쿠스틱 밴드 '음담 악설', 모던 포크 듀오인 '이상한 계절'의 공연이 누에 리온지 무대에서 펼쳐진다.

공연과 함께 누에 아트홀에서는 창조미술협회 완주지회 창립전 작품도 전시된다.

전영선 문화관광과장은 "군청 주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과 주민들에게 잠시나마 업무에서 벗어나 공연과 전시 등 예술 경험을 통한 여유와 편안함을 주고 싶었다"며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점심시간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며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5월 공연에는 김성수 모던재즈트리오, 히루차이재즈밴드 공연이 예정돼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